

의과대학과 의학전문대학원 신입생의 배경 및 특성 비교 - 일개대학 사례 -

이화여자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의학교육실, 예방의학교실¹, 이화의학 글로벌 챌린지 사업단²

한재진 · 이순남 · 권복규 · 박혜숙¹ · 임현정² · 김태은 · 안정희²

= Abstract =

The Comparison of Backgrounds and Characteristics of Students in Medical College and Graduate Medical School: A Case Study of One Medical School

Jae-Jin Han, MD, PhD, Soon Nam Lee, MD, PhD, Ivo Kwon, MD, PhD, Hyesook Park¹, MD, PhD, Hyun-Jung Im², PhD, Tae-eun Kim, MA, Jung Hee An², PhD

Office of Medical Education, Department of Preventive Medicine¹ and Ewha Global Challenge-the 2nd BK21², School of Medicine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Purpose: Information about students is important not only in developing curriculum and teaching strategies, but also in providing support to them. We surveyed students in 2004 (Medical collage) and 2007 (Graduate Medical School) to change our educational system to the GMS. By compar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se students, we expected the new curriculum to be more appropriate for the GMS students.

Methods: Our survey tool was a modified version of the matriculating student questionnaires used by the American Association of Medical Colleges. 60 (80.2%) matriculating students in 2004 (MC), and 71 (93.4%) in 2007 (GMS) responded to the survey. A total of 101 items were asked in 5 areas- 1) Demographic Data, 2) Pre-medical school experience, 3) Medical school application, 4) Career plans and interests, and 5) Perceptions of Medicine and Medical Service.

Results: Graduate Medical School matriculates have more diverse backgrounds and experiences before entrance than MC matriculates. GMS students are more sensitive to social issues and accountabilities of medicine and have a higher interest in working with other professionals. Both groups of students were similar in ranking medical professionalism higher than occupational stability or social economic compensation.

Conclusion: We can use this information about students for curriculum development and, in particular, the differences seen between MC and GMS students could be helpful in improving medical education. If the survey were collected longitudinally and nation-wide, the results could be valuable for policy making not only in medical education but also in medical care and health of the nation.

Key Words: Matriculate, Survey, Medical College, Graduate Medical School

교신저자: 한재진, 이화여자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의학교육실, 서울시 양천구 목6동 911-1
Tel: 02)2650-5629, 011-380-4766, Fax: 02)2650-5836, E-mail: jjhan@ewha.ac.kr

* 이 논문은 2007년도 제21차 의학교육학술대회에서 구연 발표되었음.

서 론

21세기를 맞이하여 우리 사회는 보다 더 고도화된 전문 인력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이러한 시대적 필요성에 부응하는 한 가지 방편으로 일반 학부 과정을 마친 학사 학위 취득자가 의학 교육을 받는, 의학전문대학원이라는 의학 교육 제도의 변화로 구체화되었다(Lee, 2001; Lee & Shin, 2003). 하지만 사회적 요구가 반영된 교육제도의 변화는 제도 변화에만 머무르지 않고 교육의 전 과정에 걸친 새로운 변화가 불가피한데 이는 거시적으로 의학 교육의 목적이나 의료 정책의 방향뿐 아니라 세부적인 교육방법 및 전략, 학생 지원체제 등에 있어서의 연쇄적인 변화를 요구한다.

여기서 학습자 변인은 변화를 실천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고려되어야 하는데, 그 이유는 학습자가 교육의 주체이며 궁극적인 수혜자이기 때문이다(Eisner, 1994; Kenneth, 1995). 그러나 이제까지 우리나라 의과대학 교육은 교육의 공급 측면에 치중하여 교수의 효율성을 중심으로, 선별한 내용을 일괄적으로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학습자 변인에 대한 적극적인 고려는 미흡한 것이 사실이었다(Lee, 2002; Lee *et al.*, 2007). 어떠한 교육의 형태에서건 그 교육의 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학습자 개개인의 배경 및 교육적 욕구, 그들의 출발점 행동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고, 그것에 기초한 교육과정과 교육방법이 구안되고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Lee & Shin, 2003; Kim, 2005). 기존의 의과대학 체제로부터 의학전문대학원 체제로의 전환은 의학교육의 대상이 고등학교 졸업자로부터 다양한 대학교육 경험을 이수한 학생들로 바뀐에 따라 학습자 정보수집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대두되었다.

이제까지 의학교육과 관련하여 학습자의 배경 및 전공과 관련한 인식이나 가치관에 관한 정보수집에 초점을 두는 국내 선행연구로는 대한의학회에서 수행한 '의과대학생의 의식 및 가치관 조사 보고서'(1998) 이외에 의미 있는 연구를 찾기 어려운 상태이며, 최근 Lee *et al.* (2007)의 연구를 통하여 의과

대학 학생 관련 시계열 자료 축적의 필요성이 제기된 수준이라 하겠다. 최근에 의학전공 학생들의 도덕적 판단력에 초점을 두어 의과대학생과 의학전문대학원생의 특성을 비교하는 연구(Kim & Kang, 2007)가 발표되었으나 이는 주로 정의적인 영역에 중점을 두는 것으로서 보다 포괄적이고 전체적인 정보 축적의 필요성 측면에서 본 연구가 차별적인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한편, Youn *et al.* (2007)의 연구는 의학전문대학원 제도 시행과 관련하여 의과대학 본과 1학년과 의학전문대학원 신입생을 비교하여 인구학적 특성 및 대학생활과 의학에 관련된 일반적인 인식을 조사하였는데 이는 예과를 마치고 본과로 진입한 의학과 1년생과 의학전문대학원 신입생을 비교하는 연구로서, 본 연구의 대상이 의예과 신입생과 의학전문대학원 신입생을 비교한 점에서 다르며 또한 설문 내용에 있어서도 보다 광범위한 설문을 통하여 의학 및 의료에 대한 인식이나 진로 등과 관련된 보다 구체적인 자료를 얻은 점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기존의 의과대학 예과 신입생과 2007년부터 새롭게 전환된 의학전문대학원 체제의 신입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학습자의 배경특성뿐만 아니라 의료가치관에 관한 인식의 차이를 살펴봄으로써 교육과정 변화에 필요한 정보 및 학습자 변인에 따른 교육정책의 방향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대상 및 방법

가. 연구 대상

이 연구는 2004년도 의예과 신입생 76명과 2007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신입생 71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설문조사에 참여한 학생 수는 각각 60명, 71명으로 응답률은 80.3%, 93.4%이었다. 본 연구 대상 학교는 여자의과대학인 관계로 모든 응답자의 성별은 여성으로 한정되어 있다.

나. 연구 방법

본 연구에 활용된 설문은 미국의과대학협의회

Table I. Domains of the Questionnaire

	Number of question
Part I. Demographic data	11
Part II. Pre-medical experience	
- Extracurricular activities	4
- Reason for taking courses	
Part III. Medical school application	
- Factors in career choice	
- Utility of advice	63
- Factors with medical school choice	
Part IV. Career plans and interests	
- Plans to become certified in specialty	
- Career intention	6
- Practice location/setting	
Part V. Perceptions of medicine and medical service	17
Total	101

(Association of American Medical Colleges, AAMC)에서 사용하고 있는 입학생 대상 조사 설문 (Matriculating Student Questionnaire, MSQ)을 우리나라 현실에 맞게 고쳐서 5개 영역 (인구학적 정보, 진학 준비 및 입학 전 경험, 전공 및 대학선택 관련, 직업 설계 및 직업 선호도, 의학·의료에 대한 인식), 총 101개 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설문 문항의 세부 영역 및 문항 수는 Table I과 같다.

설문조사는 입학이 허가된 신입생을 대상으로 하는 오리엔테이션 기간 (2004년 2월, 2007년 2월)에 진행되었으며 설문지 응답방식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다. 자료 분석

전반적인 응답 결과의 분포를 파악하기 위해서 기술 통계 및 빈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의과대학과 의학전문대학원 학생 간 문항별 응답 비율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하여 카이 제곱 (χ^2) 검정을 수행하였다. 집단 별 우선순위 항목을 파악하기 위해서 집단의 가중 빈도(weighted frequency)에 따른 서열을 산출하였고, 가중 빈도는 각 항목에 대한 응답 빈도에 척도 점수 ('매우 그렇다'=5점, '전혀 그렇지 않

다'=1점)를 곱하여 계산하였다.

결 과

가. 인구학적 정보

의과대학과 의학전문대학원 (이하 의전원) 학생의 연령 분포 및 결혼여부는 Table II와 같다. 의전원 신입생의 연령분포가 더 다양함을 알 수 있다. 의과과 신입생의 경우 전원 미혼자인 반면, 의전원생의 기혼자 비율은 10%로 나타났다.

나. 진학 준비 및 입학 전 경험

의학을 전공하기로 결정한 시기는 의과과 신입생의 경우 고등학교 재학 및 대학 입학 이전에 결심을 했다고 응답한 비율 (61%)이 높은 반면, 의전원 신입생들은 대학 4학년 (29.6%) 및 고등학교 이전 (15.5%), 고등학교 재학 (14.1%) 등과 같이 전공 결심시기가 다양하여 두 집단 간 차이가 있었다 (Table III).

입학하기 전에 참여했던 학업 이외의 활동분야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집단 간 응답 결과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p < .01$), 의전원 학생들이 보다 다양

Table II. Age at Matriculation & Marital Status

		Medical college*		Graduate medical school	
		count	(%)	count	(%)
Age	Under 20	35	(58.3)	0	(.0)
	20~25	24	(40.0)	34	(47.9)
	26~30	1	(1.7)	34	(47.9)
	31~35	0	(.0)	4	(5.6)
	36~40	0	(.0)	3	(4.2)
	Over 41	0	(.0)	1	(1.4)
Marital status	Umarried	60	(100.0)	63	(90.0)
	Married	0	(.0)	7	(10.0)
Total		60	(100.0)	71	(100.0)

* Medical college grade 1/total 6 years.

Table III. Time of Decision and Prior Experiences

When Decision made to Study Medicine	Medical college* (n=60)		Graduate medical school (n=71)		χ^2 (p)
	count	(%)	count	(%)	
Before high school	17	28.3	11	15.5	54.43 [†] (p=.000)
During high school/before college	37	61.7	10	14.1	
During the first two years of college	3	5.0	3	4.2	
During junior year in college	1	1.7	9	12.7	
During senior year in college	2	3.3	21	29.6	
After receiving bachelor's degree	0	0	9	12.7	
After receiving advanced degree	0	0	8	11.3	
Extracurricular Activities or Work Experiences Prior to Medical School Matriculation					
Instruction and advisory work	21	(35.0)	35	(49.3)	27.95 [†] (p=.002)
Social/Political activities	1	(1.7)	2	(2.8)	
Volunteer activities	10	(16.7)	22	(31.0)	
Fine arts	15	(25.0)	8	(11.3)	
Sports/Athletics	14	(23.3)	13	(18.3)	
Religious activities	13	(21.7)	20	(28.2)	
Others	14	(23.3)	31	(43.7)	

*Medical college grade 1/total 6 years, [†]p<.05

한 경험을 했음을 알 수 있다. 직업 활동은 물론 ‘인도주의 봉사활동’, ‘종교 활동’ 등에서 의전원 학생들의 참여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III).

다. 전공 및 대학 선택 관련

의학전공을 선택함에 있어서 무엇을 중요하게 고려하였는지에 관하여 ‘직업의 전문성’, ‘의료직의 사

Table IV. Factors in Medical School Choice

	Medical college*			Graduate medical school		
	count [†]	(%)	[rank]	count [†]	(%)	[rank]
Profession provides opportunity to develop expertise in a specialized area	50	(83.3)	[1]	70	(98.6)	[1]
Being a physician is one of the most intellectually challenging professions.	33	(55.0)	[7]	61	(85.9)	[4]
Physicians employ advanced diagnostic and treatment technologies.	41	(68.3)	[4]	51	(71.8)	[6]
Profession provides opportunity to exercise significant social responsibility.	36	(60.0)	[5]	65	(91.5)	[2]
Profession provides opportunity to make a difference in people's lives.	48	(80.0)	[2]	62	(87.3)	[3]
Medical practice affords high job security.	34	(56.7)	[6]	39	(54.9)	[10]
Profession provides opportunity for authority.	26	(43.3)	[11]	25	(35.3)	[17]
Dealing with the behavioral/psychological aspects of patient care is rewarding.	44	(73.3)	[3]	54	(76.1)	[5]

*Medical college grade 1/total 6 years, [†]Agree & Strongly-agree of 5-point Likert scale.

Table V. Utility of Advice

	Medical college*			Graduate medical school		
	count [†]	(%)	rank	count [†]	(%)	rank
Professors or teachers	12	(17.7)	[8]	22	(31.4)	[7]
Parent	35	(61.0)	[1]	48	(65.1)	[1]
Another relative and friend	11	(18.7)	[7]	27	(38.6)	[3]
Physician	22	(37.3)	[2]	31	(34.2)	[5]
Science course	22	(37.3)	[2]	40	(47.2)	[2]
Particular books, article, film, TV programs etc.	19	(32.2)	[4]	25	(36.2)	[4]
Health-related work experience	10	(17.2)	[9]	22	(31.5)	[6]
Experience with illness/accident	19	(32.2)	[4]	20	(28.5)	[8]
Career/guidance counselor	7	(11.9)	[10]	16	(22.8)	[9]
Health profession advisors [†]	-	-	-	16	(22.8)	[9]

*Medical college grade 1/total 6 years, [†]Agree & Strongly-agree of 5-point Likert scale, [†]Non presented to medical college students in 2004.

회적 책무성', '환자치료에의 보람', '사회-경제적 보상 및 지위' 등과 관련하여 22개 세부 문항으로 질문하였고 그 중 의미 있는 8개 응답결과를 Table IV

로 제시하였다.

5점 척도 중에서 '그렇다/ 매우 그렇다'로 응답한 비율을 비교한 결과, 두 집단 모두 '전문성 개발 가

Table VI. Factors in Application

	Medical college*			Graduate medical school		
	count [†]	(%)	rank	count [†]	(%)	rank
One's wish	51	(86.4)	[1]	70	(98.6)	[1]
One's acquirements	45	(76.3)	[2]	68	(95.8)	[2]
Parents' and family's opinions	34	(57.7)	[4]	53	(74.6)	[3]
Academic advisers' opinion	8	(13.6)	[5]	11	(15.5)	[7]
Friends' opinion	3	(5.1)	[8]	10	(14.1)	[9]
Successful possibility in entering medical school	44	(74.6)	[3]	50	(70.4)	[4]
Media materials	7	(11.9)	[6]	11	(15.5)	[7]
Presentations of medical school	3	(5.1)	[8]	22	(31.0)	[5]
Career/guidance counselor	5	(8.5)	[7]	12	(16.9)	[6]

*Medical college grade 1/total 6 years, [†]Agree & Strongly-agree of 5-point Likert scale.

Table VII. Career Plans

		Medical college* (n=60)		Graduate medical school (n=71)		χ^2 (p)
		count	(%)	count	(%)	
Specialty [†]	Yes	45	(75.0)	36	(50.7)	10.02 [§] (p=.007)
	No	0	(.0)	3	(4.2)	
	Undecided	14	(23.3)	32	(45.1)	
	No response	1	(1.7)	0	(.0)	
Sub-specialty [†]	Yes	19	(31.7)	14	(19.7)	5.54 (p=.069)
	No	15	(25.0)	12	(16.9)	
	Undecided	21	(35.0)	38	(53.5)	
	No response	5	(8.3)	7	(9.9)	

*Medical college grade 1/total 6 years, [†]Traditional departmental, e.g., internal medicine, [‡]Intra-departmental, e.g., cardiology, [§]p<.05.

능성'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의예과 신입생의 경우 인류의 삶에 질적인 변화 제공 (80%), 환자 치료에서 얻는 보람 (73.3%), 앞선 의료기술 적용 (68.3%), 직업의 안정성 (56.7%) 등을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전원 신입생의 경우, 의미 있는 사회적 책무실천 (91.5%), 인류의 삶에 질적인 변화제공 (87.3%), 학문탐구와 성취 (85.9%), 환자 치료에서 얻는 보람 (76.1%) 등의 순

으로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중요도의 우선순위 면에서 두 집단의 응답 결과가 크게 다르지는 않았으나 각 문항에 대하여 의전원 학생들의 긍정적인 응답 비율이 더 높았다. 또한 두 집단 모두 직업의 안정성, 사회-경제적 보상 및 지위보다는 의료의 전문성과 사회적 책무를 더 중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의학전공을 선택함에 있어서 영향을 끼친

Table VIII. Career & Practice Intentions

Career intentions	Medical college* (n=60)		Graduate medical school (n=71)		χ^2 (p)
	count	(%)	count	(%)	
Full-time clinical practice: solo practice	1	(1.7)	1	(1.4)	7.96 (p=.437)
Full-time clinical practice: in group of 2 or more physicians	5	(8.3)	5	(7.0)	
Full-time clinical practice: salaried, hospital based	10	(16.7)	16	(22.5)	
Full-time academic faculty: clinical teaching/research	30	(50.0)	34	(47.9)	
Full-time academic faculty: basic science teaching/research	4	(6.7)	2	(2.8)	
Other: non-university research scientist	0	(.0)	1	(1.4)	
Other: medical/healthcare official	0	(.0)	2	(2.8)	
Other: except medical care	0	(.0)	3	(4.2)	
Undecided	10	(16.7)	7	(9.9)	
No response	0	(.0)	0	(.0)	
Practice location/Setting					
General hospital	49	(81.7)	53	(74.6)	4.91 (p=.297)
Medium and small hospital	0	(.0)	4	(5.6)	
Poor area with medical supply	0	(.0)	2	(2.8)	
Special medical center	4	(6.7)	11	(15.5)	
Undecided or no preference	6	(10.0)	1	(1.4)	
No response	1	(1.7)	0	(.0)	

*Medical college grade 1/total 6 years.

인물이 누구인지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두 집단 모두 부모님(의예과 신입생 61%, 의전원 신입생 65.1%)의 영향이 가장 컸다고 응답하였고 과학과목, 의사 등의 순으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의 다른 인물들로부터 영향을 받은 비율이 의전원 학생 집단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의전원 학생들이 진로 선택과 관련된 정보를 얻는 방법이 더 다양하다고 해석될 수 있다(Table V).

이와 관련하여 의과대학/의전원을 지원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한 요인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 두 집단 모두 ‘학생자신의 뜻과 개인소양’을 중시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 문항에 대해서도 의전원 학생이 더 높게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다(Table VI). 특히

주목할 만한 결과는 의전원 신입생의 경우 의예과 신입생에 비해 ‘학교소개 프로그램’을 중요한 자료로 활용했다는 점이다. 실제 이와 관련된 질문에서 의전원 학생들은 지원학교의 교육 및 연구 역량에 관하여 의예과 신입생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라. 직업 설계 및 선호도

앞으로의 전공과 관련하여 신입생 학생들의 계획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한 의예과 신입생과 의전원 신입생의 응답은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p<.05), 세부전공에 대한 결정 여부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VII). 전공에 대한 응답 결과를

Table IX. Perception of Medicine and Medical Service

	Medical college*		Graduate medical school		χ^2 (p)	
	count [†]	(%)	count [†]	(%)		
Medicine will not be as financially rewarding in the future as in the past.	58	(96.7)	58	(81.7)	12.02 [†]	(.017)
Physicians will not receive the same respect from society in the future as they have in the past.	29	(48.3)	22	(31.0)	7.74	(.102)
Changes in the healthcare system are impairing physician's independence in Korea.	34	(56.7)	22	(31.5)	9.66 [†]	(.047)
Cases of medical litigation will rise	53	(88.3)	64	(90.1)	3.50	(.478)
The medical insurance is burdensome on physicians in Korea.	25	(43.1)	36	(50.7)	3.09	(.543)
Primary care physicians are more important than specialists.	25	(41.6)	25	(35.2)	3.56	(.469)
Physicians who work hard will always be able to build a successful practice.	57	(95.0)	64	(91.5)	5.00	(.172)
Everyone is entitled to receive adequate medical care regardless of his or her ability to pay.	54	(90.0)	63	(88.8)	2.72	(.437)
Physicians have an essential influence on patients' health improvement.	54	(90.0)	69	(97.2)	3.70	(.157)
Physicians have an obligation to take care of a reasonable number of patients who will be unable to pay for the medical fee	54	(90.0)	56	(78.8)	6.53	(.089)
Physicians have an ethical duty to treat patients with life threatening infectious disease even when there is a risk.	41	(68.3)	41	(57.8)	4.72	(.317)
Advances in the biomedical sciences have a good effect on the future medicine.	55	(94.9)	66	(92.9)	3.51	(.320)
Animal research is necessary for the advancement of medicine.	56	(96.6)	63	(90)	3.64	(.457)
Curing diseases is the most important purpose of medicine.	45	(77.6)	45	(63.4)	3.88	(.422)
Relief of patients' pain is the main purpose of medicine	41	(70.7)	39	(55.0)	5.78	(.123)
Abortion should be prohibited with extremely restricted exception.	14	(24.1)	48	(67.7)	36.43 [†]	(.000)
Mercy killing should be prohibited with extremely restricted exception.	10	(17.2)	42	(59.1)	33.77 [†]	(.000)

*Medical college grade 1/total 6 years, [†]Agree & Strongly-agree of 5-point Likert scale, [†]p<.05

살펴보면, 의예과 신입생들이 의전원 신입생에 비해 더 많은 학생들이 전공 분야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전공계획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의

경우, 의예과 신입생은 정신과 (25%)>내과 (13.6%)>소아과 (9.1%), 신경외과 (9.1%) 등의 순으로, 의전원 신입생은 내과 (16.9%)>정신과 (11.3%)>소아과

(7%) 등의 순으로 전공희망을 하였다.

아울러 장래 희망직종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두 집단 모두 임상의학 교수직을 가장 희망하였으며 (Table VIII), 수련 이후 의료 활동을 희망하는 병원 수준에 대하여 두 집단 모두 '전문 환자를 많이 접할 수 있는 대형 전문병원'으로 응답하여 집단 간 응답 결과에 차이가 없었다 (Table VIII). 그러나 낮은 비율이기는 하지만, 의전원 신입생의 경우 자선 병원 등의 특별기관이나 소외된 지역에서의 의료 활동을 희망하는 비율이 의예과 신입생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관련 연구직이나 공무원 등 의료 이외의 분야를 희망하는 비율도 의전원 학생집단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마. 의학/의료에 관한 인식

'의료직의 직업 전문성', '직업윤리', '의료직 전반에 관한 미래 전망'에 관련된 내용을 17개 문항으로 질문한 응답결과는 Table IX과 같다. 대체로 의료계가 처한 현실 (사회적 존경감소, 의료분쟁 갈등, 의료보험 제도 문제 등)에 대하여 두 집단 모두 낙관적인 응답보다는 현실적인 응답을 많이 하였다. 하지만 의사로서의 직업적 책무와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두 집단 모두 도덕적으로 성숙한 응답을 하였고 생명과학의 발전에 대하여 높은 기대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특정 의료문제 (예. 낙태, 안락사)와 관련된 생각을 묻는 질문에서 두 집단 응답 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고 찰

미국의과대학협의회 (AAMC)는 신입생 설문조사의 목적을 의학교육의 방향 수립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미래사회가 요청하는 의사양성을 원활히 하는 데 있다고 밝히고 있다 (AAMC, 2006). 공급자 중심의 교육을 오랫동안 지속해 온 우리나라 의학 교육 현실을 고려할 때, 전문 직업 교육과정에 입문하는 학습자의 출발점 수준을 진단하는 것은 이를 토대로 개별학습자 변인을 중시하고 효율적인 교육 과정을 수립하는 데 매우 의미 있는 작업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인식 하에 시도된 본 연구는, 특히 의전원 체제로의 출범과 더불어 신입생 정보를 파악하고 비교하는 일이 이전의 의과대학 교육체제로부터의 방향전환을 모색하는 데 있어서 매우 기초적인 작업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실제 설문조사 결과, 의전원 신입생은 의예과 신입생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다양한 배경과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사회적 책무성을 중시하고 의료 외의 분야에도 높은 관심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의학의 사회적 연계성을 높이고 관련 전문분야를 폭넓게 개발하고자 하는 의전원 제도의 취지와도 합치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의전원 신입생의 다양한 이전 경험을 토대로 의료와 사회와의 연계적 성격을 더욱 강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의료 전문성에 대한 관점을 범사회적인 맥락으로 확장시키는 데 유용한 근거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의전원 신입생들의 이전 경험과 의학과 관련된 그들의 가치관이 의학교육을 통하여 좀 더 발전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예컨대, '일차 의료인의 양성'이라는 공통적인 목표를 위한 교육 과정뿐 아니라, 보다 다양한 분야로 나아가는 기회가 제공되는 교육 과정도 개발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또한 의전원 신입생의 학사학위를 받은 이후 경과된 시간이 1년 미만 (54.9%)으로부터 10년 이상 (5.6%)인 경우에 이르기까지 다양하여 성인학습자를 위한 교수전략 개발 및 학습자 집단 구성 측면에서도 이전과는 다른 접근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한편, 의전원 지망자는 진로 결정을 할 때 의과대학 지망자에 비하여 보다 신중하고 주체적인 경향을 보였는데 지원학교의 사회적 평판보다는 교육 및 연구 역량, 수련병원의 역량 등과 같이 질적인 부분을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교육기관의 평가 기준이 좀 더 내실화될 필요가 있으며 이와 관련된 정보가 학교 소개 프로그램 등에 포함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신입생의 특성을 파악하는 이와 같은 자료를 매년 축적하여 분석한다면, 장-단기적인 교육과정 및 교수전략을 수립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이다. 실제 미국의 경우, AAMC에서 주관하는 의과대학 신입생 대상 설문조사가 매년 시행되고 있으며 전체 학생들의 응답결과를 다양한 방법과 수준으로 개별 대학이나 유관 기관에 제공하고, 또 사회적으로 관심이 필요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고 있다. 예컨대 2006년 조사 결과의 경우, 크게 세 가지 점에서 특징을 기술하였다. 첫째, 앞으로의 전공계획과 관련된 질문에서 ‘미정 (undecided)’의 응답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고, 둘째, 장래 희망 직무영역에 관련해서는 연구직 교수를 원하는 학생수가 늘어가고 있으며, 셋째, 희망 근무지역으로서 대도시 응답비율이 꾸준히 늘어가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AAMC, 2006). 이와 같은 결과를 토대로 의료정책과 관련된 지표를 재고할 수 있을 것이며 의과대학 수준에서의 현실 대응적인 진로 교육과정 개발도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미국 의과대학 신입생의 응답결과와 본 연구 대상 의전원 신입생 응답 자료를 비교·분석해 본 결과, 장래 희망 복무 분야에서 한국 학생들의 임상의학교수 희망 비율(44.6%)이 미국 전체 의과대학생의 희망비율(15.4%)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의사의 도덕성과 관련하여 ‘의사는 감염 위험을 무릅쓰고 치명적인 전염병에 걸린 사람을 치료할 도덕적 의무가 있다’는 질문에 대하여 미국의 의대생은 94% 정도가 동의(매우 동의 48.4%, 동의 35.5%) 하였으나(AAMC, 2006), 연구 대상 학생들은 58% 정도가 동의(매우 동의 8.5%, 동의 35.5%)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의료문화의 차이를 이해하는 데 유용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의료계 변화 전망에 따른 보다 적극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데 기초 자료로 쓰일 수 있다.

결론적으로, 의학 교육 과정에 입문하는 신입생들의 배경요인이나 이전 경험 및 가치관 등을 의학 교육과정과 분리된 것으로 이해하지 않고 이를 좀 더 적극적으로 연합시킴으로써 효율적인 프로그램 개발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이러한 작업이 일개 대학 수준에 머무르지 않고 국내 모든 대학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면, 의학교육은 물론 의료정책의 방향을 수립하는 데에도 유용한

정보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 Association of American Medical Colleges.(2006). Tomorrow's doctors, Tomorrow's cures. Matriculating Student Questionnaire (MSQ). <http://www.aamc.org/data/msq/allschoolsreports/msq2006>
- Eisner, E.W.(1994). *Cognition and curriculum reconsidered*(2nd ed.). New York: Teacher college Press.
- Henson, K.T.(1995). *Curriculum development for educational reform*(2nd ed.). New York: Harper-Collins College Publishers.
- Jeon, W.T. & Yang, E.B.(2003). *Future of medical humanities and medical education*. Yonsei University Press.
- Kim, M.K., & Kang, J.O.(2007). Comparison of career choice motivation and moral reasoning ability between students in baccalaureate and graduate-entry programs. *Korean Journal of Medical Education, 19*(2), 91-99.
- Kim, S.M.(2005). Report of research on the actual condition of 2004's matriculates. *Research on student life-Chung Nam University, 31*, 109-138.
- Lee, J.E.(2002). Right path in reform of medical college curriculum. *Chungnam Medical Journal, 29*(2), 121-131.
- Lee, J.H., & Shin, H.I.(2003). Synthetic analysis of new student questionnaire. Research on student instruction-Dongduk Women's Univ. *Institute of Student Life, 22*, 3-30.
- Lee, M.S.(2001). Medical education and graduate medical school in 21th century. *Yonsei Medical Education, 2*(2), 35-57.
- Lee, M.S. et al.(2007). *Developing medical school matriculation and graduation questionnaire for perception, career plans and interests in medicine*. Korean Institute of Medical Education and

Evaluation.

Youn, T.H., Yune S.J., Yoon S., Jeong, I.S., Park, B.K., Lee, S.Y., Chang, C.H., Kim, H.K., Rhym, B.Y., & Jeong, H.J.(2007). Comparison of

students' characteristics and perceptions before and after introduction into graduate medical school system. *Korean Journal of Medical Education*, 19(3), 251-255.